

비리·성추행...나주시 공무원들 왜 이러나

인사청탁 시도 드러나고 건축 관련 금품수수 부서 압수수색 청렴교육 허사...잇단 여직원 성추행 논란 등 기강해이 심각

민선 7기 나주시가 비리 및 성추행 등 구 설수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직원들에 청렴도 상상을 위해 반부패·청렴 교육과 청렴문화제 개최, 자가 상시학습 시스템 및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자체 청렴서약서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리와 성추행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몇 차례 단행된 인사과정에서 금품으로 인사청탁 시도가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또 시는 최근 남평읍 강변마을 아파트건축과 관련 공무원 계좌에 멧치돈이 입출금된 정황이 포착돼 해당 부서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파트건축과 준공허가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공직기강 해이 논란은 이번만이 아

니다. 시는 최근 잇따른 여직원 성추행 논란에도 휩싸여있다. 얼마 전까지 시청 공무원이었던 B씨는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동료직원 C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와 C씨는 성추행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해 1심에서 명예훼손은 무혐의 처리된 후, 2심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는 첫 번째 성추행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최근 또다시 두 번째 성추행사건이 터져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여직원 4명은 최근 노조사무실을 찾아가 "부서장 D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여직원들은 D씨가 수시로 과도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이다.

D씨는 내년 정년을 앞두고 올해 12월 공무원연수원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사건이 터지자 장기휴직할 상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들이 당사자들만 문제이지만 시에서도 청렴도 교육을 더 강화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교육을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마다 측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75개 시와 전남 22개 시군 중 ▲2015년 전국 66위, 전남 20위 ▲2016년 전국 29위, 전남 9위 ▲2017년 전국 16위, 전남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박스같이 짝퉁 나주배' 차단 길 열려

시, 브랜드 도용 방지용 최첨단 스티커 부착 배 첫 출하

추석 명절이면 성행하던 '박스같이 짝퉁 나주배'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나주시는 지난 11일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APC)에서 나주배 브랜드 도용방지용 최첨단 스티커가 부착된 배를 첫 출하했다고 밝혔다. <사진>



'배들이 캐리커'가 인쇄된 위조방지 기술(Hidden QR) 스티커 부착은 유통 과정에서 일부 양심 불량한 약덕 상인들이 박스같이 배를 통해 명성이 높은 고품질 나주배 브랜드를 도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기술은 배 박스마다 화폐에 적용하는 위조방지기술과 QR코드를 기반으로 만든 '레이블(스티커)'을 부착해 출하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조폐공사가 개발한 'Hidden QR' 앱을 이용해 배 박스에 부착된 '스티커 QR코드'를 읽으면 나주시가 인증하는 '진품 나주배'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생산에서 출하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해 나주배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는 올해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출하되는 1800t(30만 상자)을 대상으로 스티커를 박스에 시범부착해 유통시킬 예정이다. 위조 방지 효과가 탁월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우수생산자 단체와 일반농가로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2만t(전체 생산량의 40%)까지 스티커 부착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나주배 브랜드 도용방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원도심에 활기를... '메이커공방142' 골목축제 나주문화원 12월까지 진행

예술·공예품 만들고 판매 소망 등 달기 등 행사 다채



나주문화원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예술품과 공예품을 팔고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메이커공방142'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매주 금요일 아시장이 열리고 있는 원도심 나주로 142 일대. <나주시 제공>

나주문화원(원장 임경렬)이 나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메이커공방142'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나주문화원은 12일 나주시가 주최하고 나주문화원이 주관하는 메이커공방142 프로젝트를 올 12월까지 나주로 142일대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메이커공방142는 예술품과 공예품 등을 만드는 메이커들이 나주로 142 일대의 빈 상가에 입주해 문화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며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프로젝트 내용으로는 오는 10월 시민들이 원도심 활성화와 소망을 담아 '정명천년 기념 소망등 달기'로 나주로 142 일대의 밤을 밝게 밝힐 예정이다. 또 매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아시장과 함께 불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동네마살'을 운영한다.

상가 주민들은 "30년 만에 옛 나주 명동 거리의 모습이 재현됐다"며 행사를 환영했다.

임경렬 나주문화원장은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메이커들은 모두 나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직접 만든 문화상품들이 인기를

얻어 문화도시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나주시, 5개 기업과 '행복나눔 프로젝트' 협약 체결



나주시가 전력거래소 등 지역 5개 기관과 함께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지역 5개 기관과 함께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나주시 시청 이화실에서 전력거래소 및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주)미향주거복지센터 등 5개 기관과 '행복나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시와 5개 기관은 '희망나눔 프로젝트' 7대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생 협력을 약속했다. 행복나눔 프로젝트 7대 사업은 ▲희망에너지+전기차 지원 ▲행복에너지+주

택배보수 ▲취약 계층 냉·난방 지원 ▲미취업자·취약계층 교육지원 ▲지역 환경보전활동 ▲다문화 가정 지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등이다. 협약식에서 유석태 전력거래소 기획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주시와 더불어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인규 나주시장도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력거래소 및 복지 기관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시민 1000명 '나주 천년의 노래' 대합창한다

전라도 정명 천년 맞아 다음달 18일 금성관서

나주시는 2018년 전라도 정명 천년을 맞아 '나주 천년의 노래'를 제작해 시민 1000명이 함께 부르는 '1000인 시민 대합창'을 다음달 18일 금성관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역사 속의 천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천년의 희망찬 출발을 전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나주 천년의 노래' 노랫말 전국 공모에서 총 42편의 응모작 가운데 최우수작인 박신욱씨의 '나주 천년의 노래'를 바탕으로 전북대학교 이화동 교수에게 작곡을 의뢰해 독창과 합창, 관현악 곡으로 제작했다. 노래는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의 분위기

에 맞는 전통음악의 선율과 장단이 살아있는 곡으로 만들었으며 다음달 18일 개최되는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식 행사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시민대합창에는 시립합창단과 마을합창단, 실버합창단 등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합창단을 비롯해 공무원과 학생, 학부모, 기관단체 추천자, 자유신청자 등이 함께하게 되며 시는 이를 위해 합창에 참여할 시민

을 오는 16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나주시청 관광문화과(061-339-8582-8585)나 전자우편(day46@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 전원에게는 합창단 참가증서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증을 발급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문화도시 나주의 저력을 함께 공유하고 감동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될 이번 1000인 시민대합창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시행하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2018년 마음챙김 시민대학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일상의 행복과 삶의 가치 재발견을 위한 마음챙김 시민대학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적인 태도로 자각하는 것, 대상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되 주관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일상 속 알아차림
- **모집개요**

자격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모집인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마음과 명상 이야기, 감정탐색, 마음 들여다보기, 그저 이해하는 깊은 경청, 페르소나, 마음도형 함께 그리기, 춤 테라피, 바디스캔, 하타요가 등	45시간	20명

※ 강사 : 광주여자대학교 전임교원

- **모집기간** 2018. 09. 03(월) ~ 2018. 09. 28(금)
- **교육기간** 2018. 10. 02(화) ~ 2018. 11. 22(목)
- **교육시간** 매주 화, 목 18:00 ~ 21:00
- **교육장소** 광주여자대학교 강의실 및 실습실(후후 안내)
- **교육특전** 교육비 지원(재료비 포함),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등
-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접수
방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어등관 1층 3115호 평생교육원
전화 : (062)950-3583~5

"마음을 관찰하다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미묘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때 직관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더 명료하게 사물을 보게 되며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스티브즈(1965-2011)

주최 |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Kwangju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 주관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